

온달굴 관람대상물의 안내정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홍 현 철*

The Problems and Counter Plans about Tour Information of the Ondal Cave Objects

Hyun-Chol, Hong

Abstract : The problems of Ondal cave have been analyzed by the lack of academic names and explanations compared to other caves. To improve the problems, there needs to be various and balanced distribution of names, increase explanations, specializing in the form of academic explanations and the information format.

Key Words : Information delivery media, tour information, counter plans

국문요약 : 동굴 관광자원은 신비로움을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서 제공되어져 왔으나, 관광객들의 수준과 취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정보전달 매체로서 관람대상물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이에 온달동굴을 대상으로 지형지물에 대한 안내정보의 문제점 및 그 대책을 살펴보았다. 온달동굴의 문제점으로 타 동굴에 비해 학술적 명칭의 부재 및 설명문의 취약 등이 분석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으로 명칭의 다양성 및 균형적 분배, 설명문의 증설, 학술적 설명문의 형식과 내용구성을 전문화 할 필요함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정보전달매체, 안내정보, 개선방향

1. 서론

온달동굴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개방동굴은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으며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한편, 동굴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성격은 다양하여, 일반관광객인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학생이나 학술단체 등은 동굴을 방문하여 학습장으로서의 관람 목적을 갖는다. 따라서 관광객의 의식 개혁과 관광주체들의 고차위 문화적, 학술적으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제공의 입장에서 본 명칭 및 설명문의 수준은 매우 낮고 열약하다. 아직도 단순히 신비성을 갖는 동굴 탐방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방 초기의 동굴가치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관광객은 동굴관광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동굴내부의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이나 설명문을 포함한 안내문은 동굴을 찾는 관광객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동굴지형지물에 대한 명칭 및 안내문은 일정한 규칙이나 패턴이 없고 학술명과 임의로 부쳐진 명칭을 사용하거나 설명문에도 잘못된 설명 등을 비롯하여 관람객에게 혼동을 주거나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hchong@konk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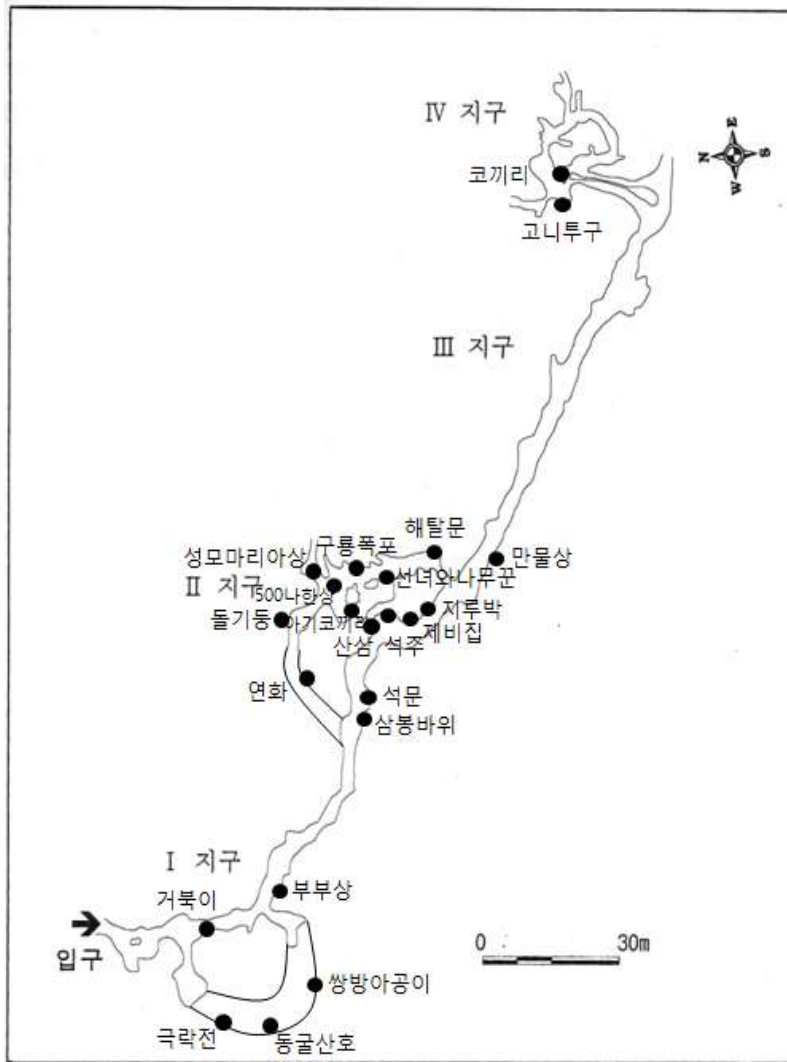


그림 1. 온달동굴의 관람대상지형지물의 분포

경우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달 동굴을 대상으로 이러한 동굴 지형지물에 대한 명칭이나 설명문의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을 정리하고, 수정할 사항이나 개선 방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지 온달동굴 만의 오류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동굴은 거의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홍현철, 2008. 조미령, 2009). 본 연구를 위하여 동굴 내의 사진은 2009년 8월에서 11월에 걸쳐 촬영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된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명칭 또는 설명문에 관한 연구동향은 최근 활발히 연구되어지고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동굴

개발과 더불어 학술적 조사가 주된 연구과제였고, 1990년대에는 동굴내의 환경변화가 일반적 연구주제였다. 2000년 이후 동굴내의 관리 보존이 주된 연구 주제가 되고 있으며, 아울러 2000년대 후반에는 동굴 관리차원과 정보제공 차원에서 정보의 정확성과 고차위 서비스에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대 이전에도 안내문이나 각종 동굴 정보에 대한 연구가 전무 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연구였거나 논문의 목적이 문제점 고찰과 개선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홍현철(2008)은 천동굴을 대상으로 한 ‘공개동굴 지형지물의 명칭 및 설명문에 대한 문제점 고찰’이 있으며, 이는 천동동굴 학술적 용어의 오류 및 설명문 구성의 문제점 도출하였다. 조미령·정규환(2009)은 ‘동굴내부 지형지물의 안내판에 대한 정보제공 특성’에서 고수동굴의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명칭의 유형분류 및 특성을 고찰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점이 도출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조미령(2009)은 ‘고수동굴 관람대상물의 안내판에 대한 문제점 고찰’에서 안내판의 정보전달 매체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들은 아직 소수의 동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의 시작점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또한 이러한 논문은 문제점 도출의 성과는 있으나 개선 방향이나 대책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연구로는 미흡하다 하겠다.

2. 온달동굴 명칭이 부여된

지형지물의 위치 및 분포

2009년 현재 온달동굴의 내부에는 무수한 지형지물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지명

이 부여된 지형지물은 23개에 불과하다. 이들의 분포는 입구 쪽에 5개, 막장 부분의 3개의 관람대상지형지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동굴 중앙부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관람대상 지형지물은 관람객이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가까운 거리의 지형지물을 관람하게 되는데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온달 동굴의 경우, 이동경로를 서로 빗겨지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 입구부 - 중앙부 일부 - 막장 - 중앙부 일부 - 입구부의 순서로 관람하도록 되어 있어, 입구부분의 일부 지형지물은 중복 관람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동굴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명칭이 부여된 지형지물 이외에도 학술적 가치가 높고 관람요소를 갖춘 다양한 지형지물이 분포하고 있다. 더욱 면밀한 학술조사와 연구를 한다면 다양한 관람 대상물의 발굴이 용이하다고 하겠다.

3. 지형지물의 명칭 및

설명문에 대한 문제점

본 장에서는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명칭 및 설명문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명칭의 유형을 학술적 명칭과 형태적 명칭으로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명칭에 대한 설명문의 부착여부와 내용구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동굴 내부의 관광정보의 일부를 제공해 주고 있는 23개의 관람대상물의 명칭 중, 2개만 학술적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1개의 명칭은 일반적인 형태적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학술 명칭이 부여된 지형지물은 동굴산호와 석주뿐이다.

표 1. 관람대상지형지물의 명칭 및 안내문구성

	부여된 명칭	명칭의 유형		대상물의 설명유무	설명문의 내용구성
		학술명	형태명		
1	거북이		O	×	×
2	극락전		O	×	×
3	동굴산호	O		×	×
4	쌍방아공이		O	×	×
5	부부상		O	×	×
6	삼봉바위		O	×	×
7	석문		O	×	×
8	산삼		O	×	×
9	석주	O		×	×
10	제비집		O	×	×
11	지루박		O	×	×
12	만물상		O	×	×
13	코끼리		O	×	×
14	고니		O	×	×
15	투구		O	×	×
16	해탈문		O	×	×
17	선녀와 나무꾼		O	×	×
18	구룡폭포		O	×	×
19	500나한상		O	×	×
20	성모마리아상		O	×	×
21	아기코끼리		O	×	×
22	돌기둥		O	×	×
23	연화		O	×	×

따라서 온달동굴은 형태적 명칭에 치중되어 있어 다양한 지형지물의 분포 정보를 제대로 관람객에게 제공해 주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즉 형태적 지명을 편중되게 사용하여 명칭의 다양성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지명이 부착되지 않은 지형지물의 활용과 형태적 명칭이 부여된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일부를 학술적 명칭으로 변경을 한다면 다양하고 균형 있게 지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여지는 충

분히 있다고 하겠다.

한편 정보제공은 명칭의 제공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부연적 설명이나 학술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온달 동굴에는 명칭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설명문이 전무한 상태라고 하겠다.

3-1. 형태적 명칭의 유형 분류에서 본 문제점 분석

21건의 형태적 명칭을 대상으로 유형분류를

통한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형분류는 편이상 사물의 명칭, 인물상에 관한 명칭, 동물 및 식물상에 관한 명칭으로 분류한다. 사물의 명칭은 다시 일반 사물명에 관한 명칭과 저명 관광지의 명칭을 이용한 유형으로 재분류하였다. 이들에 대한 빈도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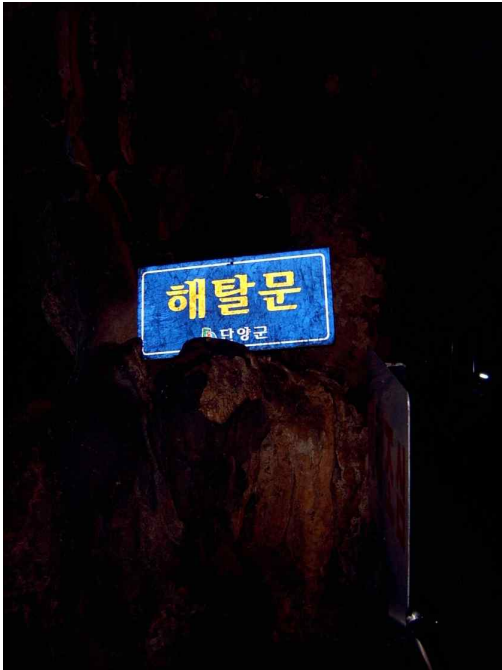


사진 1. 형태적 명칭의 사례 1

형태적 명칭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일반사물, 인물, 동물, 식물상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사물의 명칭은 11건으로 가장 많은 명칭의 유형이며, 그중 7건이 일반 사물 명칭이다.

대상이 된 사물의 종류는 바위, 문, 기둥, 폭포 등과 같은 특정 사물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저명관광지명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극락전, 석문, 만물상, 구룡폭포 등으로 '석문'과 같은 단양군 내의 관광지명명을 이용한 예도 있으며, '만물상'과 같이 금강산의 유명 관

광지 대상물을 이용한 것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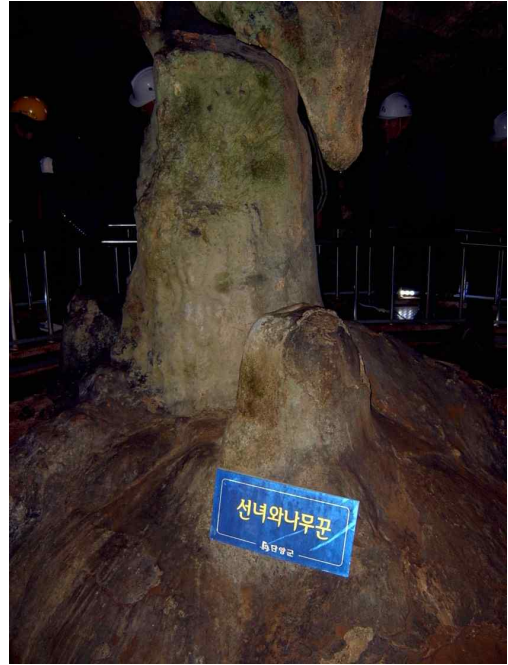


사진 2. 형태적 명칭의 사례 2

인물상의 명칭으로는 타 동굴의 관람대상물과 같은 '성모마리아상'이 있는데 동굴 지형지물에 자주 붙여지는 명칭이기도 하다. '선녀와나무꾼' '부부상' 등은 이야기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 명칭이다. '500나한상'은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대천왕'의 명칭을 사용하던 것으로 개명되었다. 동물상의 명칭으로는 '코끼리', '아기코끼리'와 같이 코끼리 명칭이 2개나 분포하며, '거북이' 등의 동물 명칭이 이용되었다. 거북이 또한 동굴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형지물이다. 식물상의 명칭은 '산삼'과 '연화'로 타 동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독특한 명칭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연화'의 경우 과거 '석화'의 명칭이 개명된 사례이다. 단순히 돌꽃이라는 사물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학술적 지형지물명인 석화(anthodite)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개명된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형태적 명칭의 다양한 분포는 장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실제로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달 동굴은 인근 지역의 다른 동굴에 비하여 형태명의 유형별 관람대상물이 골고루 분포 되어 있다. 특히, 천동동굴과 같이 사물상의 명칭에 편재된 명칭 분포는 아니라고 할 수 있

의 석순과 하나의 석주로 되어있는 ‘선녀와 나무꾼’도 명칭만 부여되어 억지성이 강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500 나한상’은 과대성이 높은 명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돌기둥의 경우는 너무 평범한 사물명이 아니가 하는 판단이 든다. 마리아상, 코끼리, 거북이, 만물상 등은 다른 동

표 2. 명칭 유형에 대한 티동굴과의 비교

(단위: 건)

	사물상	관광지명	동물상	식물상	인물상
온달동굴(21)	7	4	4	2	4
고수동굴(17)	8	3	5	0	1
천동동굴(11)	8	0	1	1	1

표 3. 형태적 명칭의 유형분류

형태적 명칭의 유형(21건)		관람대상 명칭	비고
사물의 명칭(11)	일반 사물명칭(7)	쌍방아공이, 삼봉바위, 제비집, 지루박, 투구, 해탈문, 돌기둥	
	저명 관광지(4)	극락전, 석문, 만물상, 구룡폭포	
인물상의 명칭(4)		부부상, 선녀와 나무꾼, 500나한상, 성모마리아상	
동물상의 명칭(4)		거북이, 코끼리, 고니, 아기코끼리	
식물상의 명칭(2)		산삼, 연화	

다.

굴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비교가 되기도 한다.

3-2. 형태적 명칭의 특성 및 문제점

이와 같이 온달 동굴 내에는 다양한 형태명이 분포되어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 할 수 있겠다. 형태에 따른 이름을 부여하기에 빈약하며 억지성이 강한 지명이 포함되어 있다. 지루박, 제비집, 등으로 보기에 따라서 납득할 수도 있겠으나 명칭을 보고서야 비로써 납득이가는 사례라 하겠다. 하나

또한 형태적 명칭의 반복으로 관람자의 입장에서는 지루함을 느낄 여지가 높다. 더욱이 이렇듯 대부분의 관람대상 지형지물에 일괄적인 형태적 명칭의 일괄 부여는 부족한 학술 명칭으로 인한 동굴의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동굴은 신비스러움과 흥미도 중요하지만 타 관광지에 비해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관광자원임을 재인식하여야 하겠다.

명칭 팻말의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애매하여

표 4. 관람대상지형지물의 명칭 및 지형지물의 종류

	부여된 명칭	명칭의 유형		대상물 특성	주된 지형지물의 종류	비고
		학술명	형태명			
1	거북이		O	단일	펜던트	
2	극락전		O	복합	유석(?)	대상 불분명
3	동굴산호	O		단일	동굴산호	
4	쌍방아공이		O	복합	펜던트 + 유석	
5	부부상		O	복합	모암 + 유석	조명 부족
6	삼봉바위		O	복합	펜던트 + 유석	
7	석문		O	단일	펜던트	
8	산삼		O	단일	종유석 또는 현수상종유석	
9	석주	O		단일	석주	위치 오차
10	제비집		O	단일	유석 일부	위치 불분명
11	지루박		O	단일	모암	명칭 부적절
12	만물상		O	단일	유석군	조명 부족, 명칭 빈약
13	코끼리		O	복합	펜던트 + 유석	
14	고니		O	단일	유석	대상범위 불분명
15	투구		O	단일	유석	
16	해탈문		O	복합	펜던트 + 유석	조명부족, 명칭의 해설필요
17	선녀와 나무꾼		O	복합	석주 + 석순	억지성
18	구룡폭포		O	단일	유석군	조명 부족
19	500나한상		O	복합	석순군 + 유석 + 종유석	조명 부족 명칭의 과대성
20	성모마리아상		O	단일	모암	
21	아기코끼리		O	단일	모암	
22	돌기둥		O	복합	석순	
23	연화		O	단일	석회화단구	

표 5. 학술적 명칭 및 설명문에 대한 타동굴과의 비교

	관람대상 지형지물수(건)	학술적 명칭의 건수 및 구성비(%)	형태적 명칭의 건수 및 구성비(%)	설명문 부여 건수 및 구성비(%)
온달동굴	23	2(8.7%)	21(91.3%)	0(0%)
고수동굴	24	7(29.2%)	17(70.8%)	6(25.0%)
천동동굴	15	4(26.7%)	11(73.3%)	3(20.0%)
총계	62	13(21.0%)	49(79.0%)	9(14.5%)

대상의 식별이 곤란한경우도 나타거나 조명이 정확한 위치를 조명하지 못하는 관계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관람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이다.

더욱이 온달 동굴은 동굴 내에 분포하는 지형 지물은 다양한 학술적 명칭을 갖는다. 이런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형태적 명칭을 일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동굴관광자원의 학술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형태적 명칭의 경우, 관람 대상물이 펜던트 상에 피복된 유석을 모양만으로 분류한 것 같은 일괄적 명칭으로 구성 되어 있어 명칭과 대상물의 확인을 반복하는 관람 형태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모양 찾기와 같은 행위 반복이 이루어져 지루함을 유발 시킬 수 있다.

3-3. 학술적 명칭의 미약 및 설명문의 부재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칭이 붙은 관람대상지형지물은 각각 학술적인 고유 명칭을 갖고 있다. 관람대상물의 학술적 고유 명칭은 타 동굴에 비해 다양한 편은 아니나 석회동굴에 대부분 분포하는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동굴산

호, 석회화단구 등 다양한 지형지물의 분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관람 대상으로 선정되어 명칭이 붙여진 사례를 보면, 대부분 모양의 일부가 침식을 덜 받아 남아있는 벽면에 유석이 덮여 어찌워져 형성된 유석 종류가 대단히 많다. 또한 모양의 일부가 돌출되어 나타나는 펜던트의 유석이 덮힌 대상물을 관람대상물로 선정하여 명칭이 부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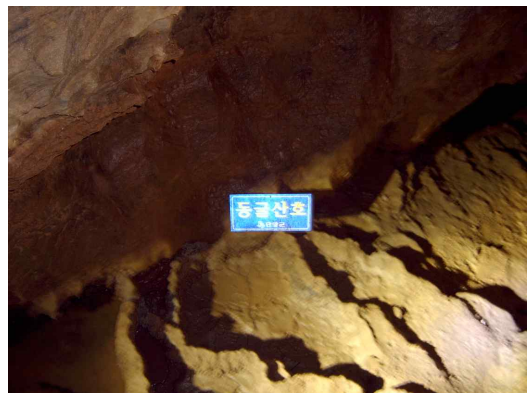


사진 3.. 학술적 명칭을 사용한 사례

이들 명칭이 관람대상물은 타동굴과 비교해 탁월한 지형지물의 부각이나 특수성이 빈약한 지형지물들에 명칭이 부여되어 있어, 온달동굴

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칭에 대한 부연 설명문이나 학술적 설명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있다. 학술적 명칭을 사용한 관람대상물이 전무하기 때문에 학술적 설명문이 없음은 당연한 사항이겠으나 이것은 동굴 지형지물의 정보 제공 역할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근지역 고수동굴이나 천동동굴에 비하여 관람지형지물의 수는 적지 않으나 형태적 명칭에 치중되어있고, 설명문은 전무한 상태로 타 동굴의 정보제공 역할에 비해 매우 빈약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4. 온달동굴의 안내판에 대한 개선 방향 및 수정 대책

4-1. 관람대상물에 대한 형태적 명칭의 다양성 및 균형적 분배

1) 온달 동굴 내 지형지물의 분포 재확인과 동시에 관람대상물의 조정이 필요하다.

온달동굴의 동굴 내부 학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온달 동굴 내에도 종유석, 석순 동굴산호, 종유관, 석회화 단구, 케비티 등 관람대상물로 훌륭한 지형지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스스로 온달동굴의 가치를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실제로 인근 동굴인 고수 동굴이나 천동 동굴이 온달동굴보다는 다양한 학술 명칭사용하고 있는데, 온달 동굴도 그에 못지 않은 다양한 동굴지형지물이 분포하고 있음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수동굴은 천정구, 유석, 석주, 커터틴종유, 림스톤과 림푸울, 동굴산호등의 매

우 다양한 지형지물을 관람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천동동굴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높은 석화, 꽃쟁반, 수중포도상구상체, 조약돌등을 관람대상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또한 다양한 고유 지형지물의 학술적 특성을 살리는 방법으로는 기존의 형태적 명칭이 부여된 대상물의 일부를 학술적 명으로 교체를 통해 명칭의 다양성 및 균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겠다.

2) 관람객의 다양성 및 요구 수준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경관의 특이성, 흥미유발, 학술 및 교육적 가치 등의 다양한 주제를 부여한 유형별 명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

온달 동굴의 경우, 인근 고수동굴이나 천동굴과 관람객 유치에 있어서 경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통적 입지 조건에서 보면 접근성이 떨어져 다른 두 동굴에 비하여 열악한 조건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고수동굴의 지형지물의 수려함과 규모가 온달동굴에 비해 크고 웅장함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천동동굴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형지물의 다양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온달 동굴만의 갖는 특수성을 개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관람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경관적인 면은 인근 타 동굴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라고는 하나 석회동굴로서의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형지물이 존재하는 한 평균수준 이상의 경관을 자랑하는 형태적 지명의 발굴이 가능하다.

일반 관람객이나 유아를 동반한 가족 관람대상자의 경우, 또한 노인단체관광 등을 대상으로한 흥미 유발이라는 주제는 좋은 동굴관람 소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욕구를 겨냥한 형

태적 명칭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일부 형태명 중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지형지물의 좀 더 체계적인 위치 배분과 관람객의 능동적 활동을 연계시켜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 예는 다음에서 자세히 언급하기로 한다.

학술적 교육을 방문목적으로 하는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나 학술단체의 관람목적은 학술적 가치가 높은 정보를 바란다. 명칭이나 설명문의 이러한 정보 제공의 매체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이 욕구에 충족할 만한 소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관람객의 다양한 수준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소재를 가진 온달동굴로 새로이 변모하는 관광자원이길 바란다.

3) 위 사항의 수정 대책으로는 다양한 관람대상 지형지물의 발굴과 관람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세부적 학술조사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4-2. 형태 명칭 및 학술적 명칭에 대한 설명문의 증설

1) 용어의 정의 및 이해관련 설명문이 필요하다. 즉 쌍방아공이, 지루박, 해탈문, 극락전 등의 용어는 초중생의 이해에 도움을 줄 사항이라 판단된다. 이에 최소한의 용어 정의를 포함하는 설명문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수 동굴 세심지의 경우, ‘마음을 씻는 곳입니다~’ 라는 설명문으로 용어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2) 용어 해설을 통한 흥미 유발의 요소를 첨

부한다.

부부상, 선녀와 나무꾼 등의 명칭은 지형지물에 대한 억지성을 가진 명칭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역으로 설명 내용에 이야기 식의 부연 설명을 첨가 한다면, 유년층 관람객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킬수 있다. 예를 들어 고수동굴의 산돼지바위의 경우 ‘머리만 내밀고 몰래 구경하는~’로 움직이지 않는 바위에 동작형 요소가 가미되어 흥미를 자아낸다.



사진 4. 고수동굴의 세심지



사진 5. 고수동굴의 산돼지 바위

4-3. 학술적 설명문의 형식과 내용구성

표 6. 고수동굴 관람대상 지형지물 설명문의 내용 구성

대상지형지물	사례동굴	설명 내용	내용 구성 요소		
			학술명 및 학술명유무	형성과정 및 이해관련	특성 및 부연설명의 문제점
유석 (flowston)	고수동굴	동굴 속에서 흘러내리는 지하수에 의해 생성되는 이차생성물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듯한 경관을 말한다.	유석군 ○	○	미약, 오해가능성
영지버섯	천동동굴	세계적으로 희귀한 수중 2차 생성물이며 물속에 갈색이트가 수류현상 때문에 영지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부유칼사이트 ×	○	오류 및 오해가능성
석화(일명 털보종유석)	천동동굴	아라고나이트 종유석으로 자라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돌꽃입니다. 생성원리는 방사성 종유석으로 자라는 과정이 다른 종유석에 비해 매우 특이하며 아직도 학술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다.	석화 ○	○	학술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시
석주(column)	고수동굴	.천정에서 매달리는 물방울이 종유석을 만들고 이들이 떨어져서 이른바 석순을 발달시키고 있는데 이들 종유석과 석순의 발달이 계속되어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이것을 석주라고 한다.	석주 ○	○	
림스톤과림푸울 (rimston rimpool)	고수동굴	지하수가 느린 경사를 가진 동상바닥을 흘러내리면 이때 유로바닥면에서 증발작용이 일어나 마치 논두렁과 같은 침전물이 생긴다. 이때 논두렁 같은 딱을 림스톤, 물이 고인 곳을 림푸울이라 한다.	석회화단구 ○	○	석회화단구 설명 미약 용어의 오류 및 어려움 오해가능성

명칭이 학술명이거나 형태명이라도 학술적 가치가 높아 학술적 설명이 필요한 지형지물에 대한 형식과 내용 구성에 일정한 범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1) 형태적 명칭이나 학술적 명칭에 대한 학술적 근거에 준한 설명이 필요하다.

2) 학술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내용은 학술적 연구가 계속되고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특히 학술적 설명의 경우, 환경 및 과정을 포함하는 석이 이해에 도움을 준다. 단 학술적 설명에는 지형지물의 생성 조건이나 환경, 생성과정 등을 삽입한다. 생성조건은 지형지물

이 생성되는 위치, 수문환경(수위 등), 기후환경, 외부피복조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생성과정은 환경에 따른 각종 작용(용해, 침식 등)을 명시하여 설명한다.

4) 모식적 표현의 삽입을 첨가해도 좋다. 문장으로 설명할 때 이해하기 힘든 학술적 부분은 모식적 삽화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학술적 근거에 준한 설명문의 정답은 없다고 하겠다. 표 6에 제시된 유석과 영지버섯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타 동굴의 예에서도 많은 오해의 소지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나마 오류 없는 설명문의 예로는 고수동굴의 석주에 관한 설명이다. 이 설명문은 학술적 근거에 준한 설명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상에도 생성환경 및 과정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술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예는 천동동굴의 석화(표6)의 설명문이 좋은 예라고 하겠다. 마지막 사례연구로 석주나 종유관에 대한 모식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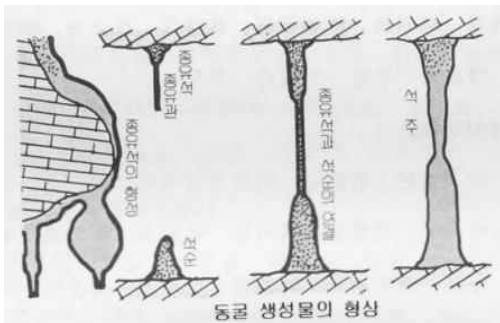


그림 2. 종유석과 석주의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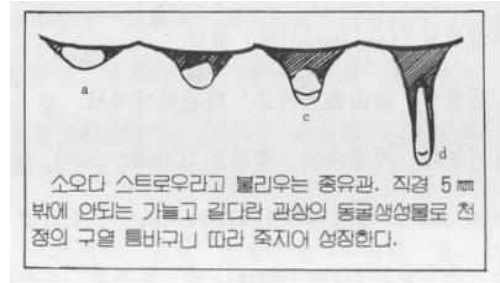


그림 3. 스트로우의 형성과정

5. 결론

개방동굴이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동굴자원은 관광 대상물로 중에서도 신비롭고 경이로운 특성을 갖는 관광자원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관람 대상물에 부착된 명칭이나 설명문은 관광 매체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역할에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더욱이 꾸준한 관광 정책에 따른 관광객의 의식 개혁과 관광주체들의 고차위 문화적, 학술적으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제공의 입장에서 본 명칭 및 설명문의 수준은 매우 낮고 열약하다. 아직도 단순히 신비성을 갖는 동굴 탐방의 경험을 제공한다는 개방 초기의 동굴 가치만을 제공하고 있다면 관광객은 동굴관광을 외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굴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전달 역할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고차위 문화적, 학술적 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때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로서 온달동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대부분 동굴 지형의 학술적 명칭보다는 지형지물의 형태에 따른 추상적인 명칭이 부여되고 있다. 2) 모든 관람대상지형지물에 대한 명칭만이 부여되어 학술적 설명

문이 전무하여 정보 매체로서의 역할이 부족하다. 3) 인근 지역의 타 동굴관광지에 비해도 매우 낮은 수준의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람대상물에 대한 명칭의 다양성 및 균형적 분배, 2) 형태 명칭을 사용한 지형지물에 대한 이해와 흥미유도 가능한 설명문의 증설, 3) 학술적 정보에 관한 설명문의 증설, 4) 학술적 설명문의 형식과 내용구성을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승삼, 1990, "일본의 Karst 지형," 한국동굴학회지, 23, 38-55.
- 김원진, 1998, "성류굴의 지형구조와 2차생성물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5, 51-57.
- 서무송, 1975, "동굴미지형학적으로 본 한국적 특례: Quick Mud와 Cave Jewel의 성인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1, 12-16.
- 서무송, 1978, "백용굴의 성인과 2차생성물에 관한 동굴지형학적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3, 1-6.
- 서무송, 2005, "한국의 동굴과 그 이차생성물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19-38.
- 서무송, 2005, "이차원의 위중유동에 관한 동굴미지형학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45-57.
- 서무송, 2005, "우리나라의 와지지형에 관한 성인론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59-66.
- 서무송, 2005, "동강 유역의 석회암 동굴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6, 95-109.
- 오종우, 1994, "고씨동굴의 내부지형에 관한 특성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39, 14-33.
- 유재신, 1979, "영월 쌍용리, 연당리 일대의 Karst 지형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 27-35.
- 최무송, 1976, "고수동굴의 동굴지형학적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2, 7-8.
- 홍현철, 2008, "공개동굴 지형지물의 명칭 및 설명문에 대한 문제점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87, 23-33.
- 조미령·정규환, 2009, "동굴내부 지형지물 안내판에 대한 정보제공 특성; 고수동굴을 사례로," 한국동굴학회지, 91, 11-20.
- 조미령, 2009, "고수동굴 관람대상물의 안내판에 대한 문제점 고찰, 한국동굴학회지," 1-11.
- 홍시환, 1993, "고수동굴의 이차생성물에 관한 지형학적 분석," 한국동굴학회지, 33, 13-43.
- 홍시환, 1979, "중유동의 형성과정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5, 5-13.
- 홍시환, 1995, "온달굴의 동굴생성물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41, 11-38.
- 홍시환, 2004, "중유굴의 형성과정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62, 35-41.
- 홍시환 외, 1990, "천동동굴의 동굴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24, 1-41.
- 홍현철 외, 1995, "화암동굴의 지형지물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42, 15-26.